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 동 열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2, FAX: (02)783-0073

# 본부 27대 이사회 본격 운영

### 각 동기회 추천이사 230명에게 선임장 조대제 직전회장·최득호 사무국장 공로패

본부동창회 최고의결기구인 제 27대 이사회가 각 동기회에서 추천한 '본부이사' 선임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 성심병원장)은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대청동 서라벌 호텔 3층 대연홀에서 한병조 사무국장(13회)의 사회로 진행된 올해 2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권오현 동문(1회) 등 11명에게 고문 추대장을 전달했다. 또 정행권 동문(9회) 등 45명에게 부회장, 방봉우 동문(10회) 등

3명에게 감사, 이 경 동문(3회) 등 230명에게 이사 선임장을 각각 전달했다. ▶이사명단 8면에 박 본부회장은 앞서 조대제(7회)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조 고문과 최득호(11회) 직전 사무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박 본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열린 본의 고문님에게 추대장을 드리고,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여러분에게 선임장을 전달함에 따라 본부 집행부는 조직 활성화 촉진을 기대하게 되었다"

며 "용마가족의 역량 결집과 동창회의 도약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사회 어디를 가나 경고인의 뛰어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빈틈없이 뚝치고 힘껏 뛰자"고 말했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이사회는 한 사무국장이 이동마이크를 들고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의 자기 소개와 하고 싶은 말 등을 밝히게 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고 정답이 넘쳤다.



본부동창회 올해 2차 이사회. 박동열 회장이 고문·부회장·감사·이사 등에게 선임장을 전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열린 동창회·화합하는 동창회·도약하는 동창회'를 위해 용마가족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제36회, 14년만에 첫 패권 감격

### 재경동창회 주최 34회 기별야구 대성황 막강 제31회 준우승 '3연패 달성' 좌절

절치부심 14년... 제36회동기회가 막강 제31회를 격퇴하는 일대 파란을 일으킨 끝에 패권을 쟁취, 숙원의 회장기를 품에 안았다. 지난 6월 30일 한빛은행 도농구장에서 폐막된 재경동창회 주최 제34회 회장기쟁탈 기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제36회는 우승을 장담하던 제31회를 15-11로 격파하는 파란을 연출, 14년 동안 염원해 온 회장기에 감격의 입맞춤을 했다. 특히 제36회는 졸업20주년기념 홈커밍데이축제를 통해 응집된 역량을 발휘, 3연패를 꿈꾸던 제31회를 좌절시키고 왕중왕이 돼

잔치의 열기가 충천했다. 이날 앞서 벌어진 3, 4위전에서 제40회는 제19+21회 합동팀을 17-15로 힘겹게 물리쳤다. 지난 5월 26일 개막, 이날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대회는 3위를 차지한 제40회를 비롯, 제44,

45, 46회가 저력을 보이면서 급부상하고 젊은 기수들이 많이 출전하는 등 기별야구대회 활성화의 조짐을 나타냈다. 이상택 재경동창회 회장(13회·안양병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6주간의 긴 레이스를 돌파해 온



제36회팀 감독이 우승기를 흔들며 감격을 나누고 있다.

선수들과 응원해준 용마가족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정동식 재경 명예회장(1회·본부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만에 야구장에 나와 동문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선수들이 열정과 애정을 갖고 선전선투하면 기별야구대회는 반드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회식에는 배중현 7회 동기회장·김경희 고문(9회)·부인과 함께 나온 이규만 재경 직전회장(12회)·정병식(9회)·김수갑·김훈호(이상 12회)·심관섭·허훈동문(이상 13회) 등 왕년의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마지막을 뜨겁게 장식했다.

# 뉴욕 용마가족 "뜨거운 유대" 등산·골프대회로 역량 결집

권근술(14회) 강연회 후원 미국 뉴욕지역동창회가 최근 가족동반 등산대회와 골프대회를 잇따라 여는 등 용마가족 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있다. 뉴욕회는 김형수 회장(20회)을 비롯한 부회장 등 회장단과 김태영 총무(31회)의 헌신적 활동에 힘입어 지난 6월에는 골프대회를 열었고, 앞서 4월에는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펼쳐 역량을 결집했다.

한편 뉴욕회는 지난 6월 14일 저녁 뉴저지주 포틀리 힐튼호텔에서 코리아 포럼 인터내셔널(KFI) 초청으로 열린 권근술 동문(14회·한양대 석좌교수·전한겨레신문 대표이사)의 "통일과 차세대 문제-남북 어린이들에게 어깨동무의 꿈 심어줘야" 제하 강연회를 후원했다. 권 동문은 이에 앞서 보스턴과 버팔로 캐나다의 토론토 등지에서도 동문들의 도움으로 강연을 했다.

## 제 26회동기회 임원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강인백

**본부동창회 이사**  
김성환 김태년 박상호 서경호 유봉식 최명해

**동기회 회장**  
김성환

**부회장**  
박상호 성백운 신재호 이성구 이철학 장중언 지용섭 추창구 하성봉

**동기회발전위원**  
강인백 김두천 김상현 김택영 박권병 박상호 박용석 박장현 박재욱

이규용 이병욱 장경재 전해룡 최 현

**총 무**  
최명해 유봉식 서경호

**감 사**  
최윤림

**직능회**  
**골프(26골)**  
회장 김상현 총무 장중언

**바둑(26기)**  
회장 권해국

**등산(26악)**  
회장 서경호 총무 강수남

**테니스(26테)**  
회장 김상현 총무 신재호

**재경동기회**  
회장 최낙준  
총무 강상모 김민철 차동민

**재마산·창원동기회**  
회장 이양춘

**재울산동기회 회장** 민창현

**재진주동기회 회장** 우종덕



'역사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말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 요즘이다.

재경동창회의 살림살이를 7개월쯤 꾸려 나가다보니 우리 용마가족의 참여와 성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었고, 모두 걱정하며 새로운 비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재경동창회 경우 용마가족의 '한가족'화의 활력소인 정기총회를 비롯해 신년회 등산대회 바둑대회 기별야구대회 등 빅 이벤트들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동문·가족들이 '정을 나눌수록 보람이 커진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특히 지난 연말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관 '2001용마의 밤'은 정말 '대단한' 축제였다. 1천300여 동문들이 모였다는 규모와 열기가 우리를 압도했지만, 더욱 놀란 것은 '감동의 일

### 시 평

#### 이상택 재경동창회장(13회)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의료법인 안양병원장  
의료법인 안양한방병원장



## '한가족' 공감대 확산을

체감'이었다. 이 같은 응집력은 우리 용마가족의 자긍심이요, '큰집'의 위상이요, 미래를 예비하는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본부동창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기별대항 바둑대회와 등산대회를 출범시켰고, 기별대항 낚시대회의 부활과 골프대회, 기별야구대회와 테니스대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등 용마가족의 역량 결집을 위한 일들을 과

감히 펼쳐 모두 성공시키고 있어 괄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각 국내의 지역동창회나 각 동기도 등산·바둑·체육대회 등을 열어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있으니, 이 같은 저력은 모두 자체적 발전을 거쳐 본부동창회의 발전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 마음 흐트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정계·군부·관계·법조계·학

계 등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특히 국회쪽에서는 세 동문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부산시의원(4명)이나 지자체장(3명), 시도교육위원(2명) 등도 새로 배출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한다.

지난 세기, 조국의 초석이 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한 모교의 찬란한 역사는 용마들의 자랑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온갖 풍상을 겪고 역사 앞에 우뚝 선 경남중고동창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교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열정 또한 끊이지 않아 오늘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우리 용마가족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도약대를 정립하는데 기꺼이 동참할 것을 다시 결의하자.

## 25년 간 모은 돌조각 일부 정부에 기증

### 천신일(15회) 훈장받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돌박물관을 세운 천신일 동문(15회·전 본부동창회 부회장·사진)이 최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천 동문의 공적은 자신이 애지중지해 오던 문인석(文人石·문신 모습의 돌조각) 20점과 동자석(童子石·아이 모양의 돌조각) 4점이다 '돌조각 연구·

보존비' 1억 원까지 없어 정부에 쾌척했던 것. 이들 문인석과 동자석은 경북군 안 민속박물관 앞마당을 지키고 있다. "그냥 돌조각이 좋아서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허가 받은 골동품상이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천 동문은 젊었을 때 5, 6년간은 백자에 미쳤다가 어느 날 돌조각을 본 후로 이에 혼을 뺏기고 말았다고 한다. 경기 용인군 양지면 '세죽돌



간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수억 원을 들여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가져간 돌조각을 사왔고 지난 6월 중순엔 이 가운데 일부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에는 천 동문이 지난 25년간 모아온 6000점의 돌조각이 '돌사랑'의 혼을 저마다

### 정금출(8회) 기독교잡지협회장 취임



정금출 동문(8회·고신언론사 대표·사진)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고신총회회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잡지협회 제18회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 협회 회장직을 중임하게 된 정 동문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보교과관 상호 협력을 통해 회원사 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봉원(10회) 청소년상담실장협의회장



이봉원 동문(10회·사진)은 지난 7월 10일 대구 갯바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국 16개 광역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장협의회 8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부산사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부산시교육청 장학사·연구관·다대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 황일인(13회) 13회 김수근 문화상 수상



황일인 동문(13회·일건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은 최근 제13회 김수근 문화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황 동문의 이번 문화상 수상작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다.

황 동문은 그간 국전 건축부 문교부 장관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서울특별시 건축상·대통령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올림픽 선수 기차촌·한국공항터미널·부산정보통신센터·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서울대 예술관연구동·영은미술관 등이 있다.

### 최재범(18회) 서울시 행정 2부시장 발탁



최재범 동문(18회·사진)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임 중 최근 행정 제2부시장으로 영진했다.

연세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최 동문은 종합건설본부차장 도시계획국장 하수국장 건설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김석구(19회) 부산북부경찰서장



김석구 동문(19회·사진)은 부산동부경찰서장 재임 중 지난 7월 16일 북부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경찰간부후보 25기로 임관된 후 산청경찰서장 연산경찰서장 부산지방청 정보과장 동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 오경종(19회) 울산경찰청 경무과장



오경종 동문(19회·사진)은 마산동부경찰서장 재임 중 지난 7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경찰간부후보 24기로 임관한 후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및 교통과장, 부산진 및 마산동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 허승조(22회) (주)LG유통 대표이사



허승조 동문(22회·사진)은 LG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재임 중 지난 7월 1일 (주)LG유통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 회사는 7월부터 출범한 LG그룹의 유통사업 통합법인이다.

한양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한 허 동문은 2000년부터 LG백화점 사장으로 일하면서 할인점인 LG마트도 맡아왔다. 뛰어난 경영 수완을 발휘해 대형 할인매장들과의 경쟁에서 앞섰다.

### 윤승근 회장 취임 제21회 신우회 정기총회



제21회 동기회 신우회(기독교인 모임) 2002년 정기총회가 5월 13일 오후 7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신우회 사무실에서 열려 윤승근 회장(인애교회 장로·사진)을 취임시켰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회장=윤승근
- △부회장=한인환(제3영도교회 장로)
- △감사=이일상(수영로교회 집사)
- △총무=강순석(해운대침례교회 집사).

## "김건국(國)의 김수인(人)들은 예로부터 강태공과 강형구(球)를 즐겨 찾다"

### 동기생 이름으로 본 월드컵4강 진출 기원

남위 21도·서경 47도에 위치하고 있는 축구의 섬, 그곳은 바로 김종도(島)이다.

김종도 북쪽에는 김건국(國)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김수인(人)이라 불렀으며 예로부터 축구를 좋아해 김태공과 강형구(球)를 즐겨 찾다.

김수인들은 고병수(水)와 최성하(河)라는 냇물 옆의 정철길을 오르내리며 강기철과 김종철(鐵)로 만든 김병추(鐵)로 낚시도 즐겼다.

이 나라에는 큰 산은 없고 어머니 젖가슴을 닮은 유봉과 이기봉(峰)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앞은 산에는 박득송(松)과 최극림(林)이 우거져 있고 그 기슭에는 안종택(灘)이란 큰 못이 있어 사람들은 노광배를 타고 뺏놀이도 즐겼다.

유봉과 이기봉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석재와 장기재라는 두 언덕을 넘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늘 전풍(風)이 불었다. 또 밤이 되면 하늘에는 장해성과 운모성(星)이 반짝반짝 빛났다.

어느 날 김종도에는 이기우 허창우 이영우(雨)라는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김혜중 백일승(僧)이라는 두 스님이 한 귀로는 김경종(鐘)을 듣고 한 손으로는 김훈탁(鑼)을 치며 천년 후에 있을 월드컵의 한국 4강 진출을 빌었다. (구성 김수인·27회)



# 제13회 · 19회 · 24회 '왕중왕' 영광

## 본부주최 2회 용마바둑대회...준우승 제11회 · 16회 · 25회 차지

### 제9회 출전 노익장 과시

동창회장기 쟁탈 용마바둑대회에서 제13회A와 제19회와 제24회가 각각 중·장·청년부에서 왕중왕에 등극, 천하통일의 위업을 세웠다.

지난 7월 7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2회 용마바둑대회(주최 본부동창회·주관 용마바둑회) 결승대국에서 중년부의 제13회A팀은 노장 제11회와 거문 끝에 4-1로 이겨 종합전적 3승을 세워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중년부 준우승은 제11회(전적 2승1패), 감투상은 제9회(전적 1승2패)가 받았다.

장년부의 제19회는 결승대국에서 제17회에 3-0으로 이겨 종합전적 4승으로 우승, 작년 우승팀인 제16회의 추격을 따돌렸다. 장년부 준우승은 제16회(전적 3승1패), 감투상은 제22회(전적 3승1패)가 수상했다.

또 청년부의 제24회는 결승대국에서 제29회와 대결, 3-1로 승리해 종합전적 4승을 세워 왕위를



7월7일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2회 용마바둑대회 기별대행 대국 모습.

차지했다. 청년부 준우승은 제25회(전적 3승1패), 감투상은 제29회(전적 2승2패)가 받았다.

한병조 용마바둑회장(13회·본부 부회장 겸 사무국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오전 9시30분 개막식에 이어 제9회부터 제40회까지 모두 21개팀이 불꽃 튀는 반상대전을 벌였다.

정행권 본부수석부회장은 (9회·부산가스개발 대표)은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장고와 지략과 패기로 전진해야만 패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바둑을 통해 우리 용마가족이 결집력을 건

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침묵 속에서 손으로 주고받는 대화, 즉 수담(手談)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활력소'를 퍼올리자"고 말했다.

이날 대국은 △총호선·덤 6집 반 △1시간 후 30초 초읽기 3회 실시 △스위스리그로 진행됐다.

각 부 우승팀은 우승기·우승컵과 상금 30만원씩을, 준우승팀은 준우승컵과 상금 20만원씩을, 감투상은 상금 10만원씩을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동문들은 단합회를 갖고 결속과 화합을 다짐했다.

# 제18+19회 합동팀 '우승 스페셜'

노련한 테크닉으로 패권을 쥔 제18+19회 합동팀이 우승기를 받고 있다.

### 용마테니스대회 준우승 제28회 MVP 이영재(19회)

관록의 제18+19회 합동팀이 '우승 스페셜'에 성공, 황금실로 수놓은 용마기를 품에 안았다.

지난 6월 16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테니스장에서 폐막된 제27회 용마테니스대회 결승전에서 제18+19회 합동팀은 2년 연속 결승에 올라온 다크호스 제28회를 물리치고 대망의 패권을 쟁취했다. 앞서 벌어진 3, 4위전에서는 제26회가 강공 일변도의 제40회를 누르고 3위에 올랐다.

이날 MVP는 이영재(19회)·우수선수상은 김준연(28회)·감투상은 강태중(26회)·미기상은 백성대 동문(40회)이 각각 받았다.



특히 MVP 이영재 동문은 부상으로 받은 선봉기를 최연장자인 제13회 선배의 부인에게 선물해 박수를 받았고, 뒤풀이 행사 장기 자랑에서는 허철구 동문(25회)의 부인이 행운대상(월드컵 공인 축구공)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오전 10시 130여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형근(19회) 용마테니스 회장 대회사, 박동열 본부회장 격려사, 이향우 용마테니스회 고문(18회) 축사, 대회 규정 및 경기 방식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 국회상임위원장 · 시의원 · 지자체장 · 교육위원 당선자

#### 국회 상임위원장

나오연(6회) 재경위원장  
김형오(20회) 과기정통위원장  
박종웅(25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인 나오연(6회·위)·김형오(20회·가운데)·박종웅(25회·아래)이 각각 제16대 국회 후반기 재경위원장·과기정통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 선임됐다.

나 동문은 고향인 양산에서 14, 15, 16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으로 당내 재무통이다. △부산대 △국민대 경상대학장 △한국세무사회장 △한나라당 경남도지부장.

김 동문 역시 부산 영도에서 14, 15, 16대

에 내리 당선된 3선의원이다. 지난 92년부터 줄곧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원 맡아와 이 분야 전문통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대통령 정부비서관 △신한국당 기초위원장.

박 동문은 YS대변인 역할을 해 온 '영원한 YS맨'으로 부산 사하에서 15, 16대 당선된 2선의원이다. △서울대 법대 △청와대 정부비서관 △신한국당 사무부총장.



#### 부산광역시의원

조길우(16회) 이종철(16회)  
박기욱(23회) 장창조(27회)

지난 6.13 부산시의원선거에서 조길우·이종철(이상 16회)·박기욱(23회)·장창조 동문(27회)이 각각 당선됐다(왼쪽에서부터).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조 동문(동래구 2)은 부산대 행정학과를 나온 3선 의원이다. 본부동창회 부회장과 부산시 하키협회장을 지냈고 현재 동일택시 이사·부산시체육회 부회장이자.

2선의의원인 이 동문은 부산대를 졸업했고 용호향우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용호지역 발전협의회장·민주평통 남구 부회장·승용상사 대표이다.

고려대를 졸업한 박 동문은 초선의원으로 기대가 크다. 부산문화회 회장·고려대 부산교우회 부회장·한나라당 남구지구당 홍보위원장.

부산대를 졸업한 장 동문은 3선 의원으로 이번엔 보사환경위원장에 선임됐다. 사하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민주평통 사하구협의회 자문위원·한나라당 중앙당 상무위원.

#### 광역시·기초단체장

이인준(22회) 부산중구청장  
박맹우(25회) 울산광역시장  
하영제(27회) 남해군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인준 동문(22회)과 박맹우 동문(25회)이 각각 부산중구청장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됐다(위 왼쪽부터). 또 하영제 동문(27회·아래)은 남해군수로 당선됐다.

중앙대를 졸업한 이 동문은 재선 구청장으로 두 번 다 무소속으로 출마, 유권자의 신임을 받았다.

부산시의회 의원·초대 행정교육위원장·부산중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대를 졸업한 박 동문은 울산시 건설교통국장 제임 중 명퇴,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 부시장 제임 중 명퇴, 출마했던 하 동문은 서울대 농대와 행정대학원, 미국 시라큐스대 백스웰스 행정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도교육위원  
김선동(10회) 부산시교육위원  
이광희(30회) 경남도교육위원

지난 7월 8일 실시한 시도교육위원 선거에서 김선동 동문(10회)이 부산시교육위원으로, 이광희 동문(30회)이 경남도 교육위원으로

로 각각 당선됐다(왼쪽부터). 경북대 사대를 졸업한 김 동문은 부산시 교육청 장학사·장학관·금정여고 교장·남부교육청 교육장·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동문은 서울대 원예학과 3년 중퇴(6·17 계엄포고령 위반 구속 등)한 후 방통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경남대 북한대학원을 수료했다.

민주평통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이 동문은 김해 YMCA 이사·김해중 운영위원장·동 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제 30회 동기회 임원 명단

### 고문

서하수 송영환 유영진 유정동  
윤성덕 최거훈 하규양

### 회장 김병기

총무 왕순모 우홍제

감사 서강대

### 부회장

김수동(수석)  
권용택 김세일 김종진 김현태  
박규완 박형구 서병환 서창덕  
이상필 장영조 정성원 정유철  
최우철 허영재 황철민

### 이사

구의본 권오봉 김경수 김기섭  
김동준 김병섭 김영호 김용환

김유기 김재중 김창곤 문장호  
박기형 박동욱 박병규 박성훈  
박웅석 박인달 박정태 박희관  
변용환 서민석 서복현 서재원  
손보현 송철수 송한식 신광배  
신영주 신운원 오경일 윤인태  
이경우 이기환 이동대 이명건  
이병구 이영준 이인길 이호준  
임영호 장재호 정경목 정광덕  
정승진 정영호 정용하 정채화

조재우 최석렬 황규태

### 지역별 동기회

서울·경기지역  
회장 양석모 총무 박광호  
마산·창원지역  
회장 김해곤 총무 김재수  
울산지역  
회장 안호중 총무 김승범

### 동호회

삼공포럼 회장 최거훈  
삼공회(골프) 회장 서하수  
삼공신악회  
회장 문장호 총무 김병섭  
삼공테니스회 회장 황철민  
삼공뉴스회 회장 임영수  
삼공바둑회 회장 조재우



제18회동기회가 요즈음 신바람이 절로 나고 있다. 서울 동문들은 바닷바람 시원하고 싱싱한 생선회맛 죽여주는(?) 부산에 초청돼 바둑대회로 우정을 한껏 심었고 부인들은 등산대회를 겸한 진짜 한우갈비 푸짐한 단합회에 초빙됐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화합과 결속을 과시했다.

### 지금 18회엔 신선한 우정·짜릿한 감동 '철철' 서울동문 부산서 바둑대회 부인들 한우갈비파티 초대

제18회는 지난 6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1913호 동기회 사무실에서 동기회관 개관기념 경부바둑대회를 열었다.

김길제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부산에서 박도형 기우회장과 장연식 총무 포함 40여 명이, 서울에서 한광수 기우회장과 이원행 총무 포함 21명 등 모두 60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대회가 끝난 후 일행은 오후 7시부터 단합회를 열었고 뒤를

이로 노래방에서 열창대회도 곁들였다.

서울 동문들은 주최측으로부



산행대회를 벌이고 있는 동문·가족들. 특히 산행 후 부인들은 한우갈비파티에 열매져 "여보, 당신 최고야!"를 연발...



바닷바람 시원하고 생선회맛 죽여주는(?) 부산에서 열린 서울동문 초청 바둑대회.

터 아시안게임기념 손목시계를 선물받았고 뒷날인 23일 오후 귀경했다.

#### □ 여보, 당신 최고야! □

한편 동기회는 지난 6월 2일 부산 기장군 기장태마공원에서 부부동반 등산대회를 주관한 후 철마 청농원에서 진짜 한우갈비만 제공된 단합회를 열었다.

김길제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 60여 명이 참석했는데, 부인들은 이날 자신들을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마다 "여보, 당신 최고야!"를 연발했다.

### "동창회 날로 번성하고 동문·가족들에 행운을..." 울산지역회 회관 개관식

울산지역동창회 회관 개관식이 지난 6월 15일 오후 5시 울산 남구 무거2동 현장에서 김형수 회장(14회)을 비롯한 고문단 회장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회장이 주재한 이날 개관식은 통돼지머리를 중심으로 차려진 제단에 분향·헌주 순으로 진행됐다. 고문 및 각 동기회장들의 헌주를 끝으로 축배를 나눴다.

서정욱 사무국장(15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변봉규 산우회장(7회)·김상식(8회)·유병철 고문(9회)·박홍조(22회) 등

부회장 다수·김성규 수석감사(10회)·김우성 경문회장(8회) 등과 최병준 12회 회장 등 각 동기회장, 김병수 본부동창회 총무부장(22회)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마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회관을 마련함으로써 숙원을 풀었다"며 "이 회관이 용마의 기상을 분출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가 되고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끔 잘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오후 8시 단합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울산시장에 당선

된 박맹우 동문(25회)이 합류해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회관 한쪽 벽면을 완전히 덮을 정도의 대형거울을 기증했고 이문희(23회·프

라우메디병원장)·최일진(31회·현대의의원장)·조진섭 동문(32회·한식당 '청목' 대표) 등이 각각 대형 꽃바구니·화환·화분 등을 협찬했다.



울산지역동창회회관 개관식에서 김형수 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이 현판제막식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이추남 회장 재신임 일오기우회 총회...바둑대회



제15회동기회 일오기우회는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

바둑센터에서 정기총회 겸 5월 정례대회를 열고 이추남 회장(사진)을 유임시켰다.

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1년이상 중단됐던 기우회의 부활 및 활성화 △동기회 사상 첫 재경 동문 초청 경부바둑대회(4월 27~28일) 성공적 개최 등으로 크게 헌신한 이 회장을 재신임했다.

바둑대회 후 열린 흥겨운 회식은 한해수 동문의 특찬금이 한몫을 했다.

### 유영상 우승 샷 이철백구회 골프대회

제27회재경동기회 골프모임인 이철백구회는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 광주시 근교 레이크사이드CC에서 정례대회를 열었다.

손정식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우승 유영상·메달리스트 손정식·롱기스트 윤모성·니어리스트 김진희 동문이 각각 랭크됐다.

### 우승 천우태 차지 이철기우회 바둑대회 새 회장 정민화 선임



제27회동기회 이철기우회는 지난 5월 25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동기회장배 제3회 바둑대회를 열었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천우태 동문(아마 5단)이, 준우승은 이종찬 동문(3급)이 각각 차지했다.

장창조 동문(부산시의원) 등 15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부산 거주 김준영 프로 3단과 지도다면기(대국 김태우 정민화 김경진 이종찬 백승엽)를 벌여 1승을 거뒀다.

대회 후 열린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정민화 동문(정내과의원장·사진)을 선임했다. 이날 이판세 정민화 박찬석 장창조 동문 각각 10만 원을, 조용수 정광모 백승엽 동문이 각각 5만 원을 협찬했다.

### 지리산 1박2일 이팔산우회, 산행 즐겨

이팔산우회(제28회) 지리산 등산대회가 지난 6월 8~9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이원철 회장이 주재하고 전문산악인인 서영대·정근재 동문의 리드로 백무동~한신계곡~세석평원~거림골 코스를 즐긴 동문·가족 20여 명은 초여름의 싱그러움에 흠뻑 젖었다.

특히 이날 왕초보(?) 몇 명이 맘을 같이 땀땀 흘린 탓에 예정 시간보다 늦은 하산이 됐으나 어느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없었고 되레 박수로 이들을 격려했다.

#### 계·시·판

##### 제8회재경동기회

지난 7월은 배우원 동문이 검경사의 행운을 잡은 달. 배 동문은 골프와 바둑대회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

##### 우승 배우원·유문자씨

제8회재경동기회 골프모임인 잔디회(회장 배우원)는 지난 7월 4일 안성CC에서 20명 5팀이 겨룬 제112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배우원·준우승 이창규·3등 정진수·니어리스트 전영배·행운상 이우환 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유문자·준우승 문경희·니어리스트 전은희·행운상 이정자씨가 각각 차지했다.

##### 바둑대회 우승 배우원

바둑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일품기원에서 정례바둑대회를 열었는데, 우승 배우원·준우승 이창근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엔 최대영 동문이 맨 먼저 나타났고 뒤를 이어 신현주 김진석 이창근 윤태영 배우원 이유환 이종수 강성태 동문이 도합했으며, 손대근 동문이 꼴찌를 차지했다.

##### 관악·도봉·수락산 등정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7월 20일

도봉산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행에는 김 회장 등 12명이 참가했다. 산우회는 앞서 같은 달 13일에는 관악산에 올랐는데 27일에는 수락산에서 심신을 단련기로 했다.

##### 제10회재경동기회

##### 각 친목회 7월 모임 성황

제10회재경동기회의 여러 친목회들은 7월 중 각각 월례를 열어 오손도손 정을 나눴다.

일금회는 26일 오후에 만나 우정을 재확인했고, 경록회는 25일 정오 자유CC에서 골프로 심신을 단련했으며, 강남회는 23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보신을 했다.

사니조아회는 21일 청계산에 올랐고, 새보리회는 20일 오후 6시 전주관에서, 여의도회는 16일 정오 옛골에서 각각 소꿉잔을 주고 받았다.

바둑모임인 동수회는 13일 오후 1시 명동의 자스민기원에서 수담을 나눴고, 안산회는 9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정우회는 4일 정오 타워호텔에서, 강북회는 2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회포를 풀었다.

##### 경록회 골프우승 김상태 김연수 동문 금일봉 쾌적 이정배 회장 특별상 협찬

제10회재경동기회 골프모임인 경록회는 지난 5월 23일 자유CC에서 올해 3회 대회

를 열었다.

이정배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우승 김상태·메달리스트 양희복·준우승 조상진·3등 진 강·롱기스트 이승락·니어리스트 서창석·행운상 안우만·특별상(버트) 윤재모 동문이 각각 받았다.

이날 김연수 동문이 2회 대회 우승 벼으로 금일봉을, 이정배 회장이 특별상 부상으로 버터를 각각 협찬했다

##### 제15회동기회

##### 동기회관 운영위원회 개최

동기회관 운영위원회 올해 1차 회의가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동대신동 오막집에서 손부흥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조일랑 실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모두 10명이 참석, 회관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손 위원장 특찬금(20만 원)으로 단합회를 열었다.

##### 이화회·화진회 모임

이화회(회장 이동근)와 화진회(회장 김판)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각각 동백식당과 소도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 남과 여 화끈한 열창대회

삼팔회(회장 최병우)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통운뷔페에서 제47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 8명과 부인 6명은 노래방에서 열창대회를

벌였다.

##### 경부합동반창회 열기로

삼오회(회장 손부흥)는 지난 7월 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오막집에서 2개월 만에 제3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대구의 김중환 동문과 울산의 이현우 동문을 비롯, 7명이 참석했는데 경부합동반창회를 오는 가을쯤 열기로 뜻을 모았다.

##### 제21회재경동기회

##### 스물정우회 318차 정례회

여목회는 참치회파티 열어 백두산악회 도봉산에

테니스모임인 스물정우회 제318차 정기모임이 지난 6월 23일 오전 그린테니스 코트에서 열렸다.

또 여목회는 지난 6월 20일 정오 동신체육여의도광장에서 6월 정례회를 개최했다. 백두산악회는 지난 6월 9일 도봉산에서 153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김종민 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에는 19명이 참석, 오전 10시 산행에 들어가 방학동~원흥사~보문산정~우이암~오봉샘~여성봉~송추폭포~송추역에 이르는 3시간 30분 코스에서 맘뻬벅이 됐다.

일행은 오봉샘 앞에서 간식을, 송추역 앞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친목그늘에서 우정의 원샷! 부인들이 손수 삶아 내놓은 쇠고기국밥과 참숯불고기 등 동문·가족들이 आयु회의 참맛을 만끽하고 있다.

### 부인들 쇠고기국밥 장사 "인기"

제10회 동기회  
야유회 신바람  
참숯불고기에  
소줏잔 나누고  
노래자랑 열자  
'체통·내숭' 없어

제10회 동기회 봄철야유회가 지난 5월 26일 경남 양산시 동면 근교 아가피아농원에서 열려 단합을 과시했다. 전영대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부인들이 손수 가마솥에서 끓여낸 쇠고기국과 참숯불고기에 소줏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이날 부인들의 쇠고기국밥 장사(?)는 신이났다. 특히 초청밴드의 경쾌한 반주에 맞춰 펼친 노래자랑에서는 '할배 체통'이나 '할배 내숭' 따위는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모두들 명가수(?)가 됐다.

## 26년 전통 '동기회京釜야구전' 대성황 후라회, 전국 유일 위업 세워

올해 대회 경남고서  
부산, 서울에 9-6 승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  
'영원한 맛수' 우정 만끽



26년 전통의 경부야구전을 치른 후 기념 촬영. 제24회 후라회의 '동기회 경부야구전'은 전국 어느 동창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26년 전통의 동기회 경부야구대항전. 제24회 동기회가 어느 동창회에서든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을 세운 주인공이다. '후라회'로 회자되고 있는 제24회 야구팀이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 모교 경남고 운동장에서 경부대항전을 펼침으로써 '26년째 위업을 세우는 감격을 안았다. 이 대회는 부산과 서울을 해마다 번갈아가며 치르고 있다. 장민재 후라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70여 명의 부산·서울 용

마가족의 환호와 격려와 폭소에 묻힌 뜨거운 응원속에 격전을 벌인 끝에 부산팀이 서울팀을 9-6으로 눌렀다. 대회를 마친 일행은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열린 단합회에 참석, 우정의 술잔을 나눴다. 한편 서울팀을 환영한 전야제가 전날인 25일 저녁 삼송초밥에서 열렸다.

## 찍수기 4년만에 V 잉가래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찍수기가 가족사랑체육대회에서 4년 만에 종합우승의 영광을 쟁취, 감격을 누렸다. 지난 5월 26일 경남 마산시 한일전산여고 잔디구장에서 200여 용마가족이 기량을 겨룬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주최 제24회 가족사랑체육대회에서 '파죽지세'의 찍수기는 '철용성' 홀수기를 맞아 축구 등 5개 종목을 석권, 3년 연속 석패의 한을 풀었다. 김재근 회장(19회·동마산병원장)이 주재한 대회에서 홀수기는 붉은색 등산조끼를, 짝수기는 푸른색 등산조끼를 각각 입고 >축구 >높이 >빠르게 >달야구 >손수레운전 >물동이 이고 달리기 등 경기를 벌였다. 이날 화합과 결속을 과시하는 최다참가상은 제32회 동기회가 차지했고 개인상의 비둘기상은 변

일수 동문(16회)이, 잉꼬상은 신봉준 동문(42회)이 각각 받았다. 양팀(홀수기 : 감독 송인창·17회·주장 이상렬·23회·주무 홍정표·31회, 짝수기 : 감독 박소웅·16회·주장 김수용·24회·주무 김종식·32회)의 응원단은 치밀한 작전과 불꽃 튀는 열전으로 선수단에 시종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과 지역 동문들이 격려금을, 노기태 부산시 정무부시장(20회) 및 각 동기회와 강삼재 의원 및 김호일 전 의원이 상품을 협찬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3회)과 이근식 행자부장관(19회) 등이 축전을 보내왔고 공민배 창원시장(27회)과 황철근 마산시장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 마창회 가족사랑체육대회 제32회 최다참가상 차지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주최 제24회 가족사랑체육대회 입장식.

### 북덕유산 정상 향적봉 등정 제21회 부산·마산 산꾼 부경합동산행대회

제21회 동기회 부산·마산 산꾼들이 펼친 제6회 부경합동산행대회가 지난 6월 6일 무주리조트~북덕유산 코스에서 치러졌다. 신남석 산행대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에 48명이 참석, 무주리조트~콘도라 이용 북덕유산 정상 향적봉~백련사~덕유산휴게소~구월담~청류동~비파암~사자담~인월담~월하담~당골~무주 구천동~전주합지회관 코스에서 발품을 팔았다. 일행 중 하체가 약한 산꾼들은

향적봉 탐사팀인 A조에 들어가 무주리조트 콘도라를 이용해 향적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전주합지회관에 집결, 산행팀인 B조를 기다렸다. 폐활량이 좋고 다리힘이 센 B조는 콘도라를 타고 향적봉에 올라가 백련사를 거쳐 무주 구천동 33경을 구경하며 내려와 전주합지회관에서 A팀과 합류했다. 이곳에서 일행은 오후 7시5분 단합회를 열었다.

### 일오산우회 19명 대운산서 기개 펴

제15회 동기회 일오산우회 제198차 등산대회가 지난 6월 16일 경남 서창 근교 대운산에서 김중광 회장 주재로 19명(동문 18명·부인 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일행은 김경일 산행대장의 리더에 따라 대운산 정상에 오른 후 명곡쪽으로 하산, 모처럼 등산다운 등산을 했다. 온천장 허심청에서 피로를 풀 일행은 명성 곰탕집에서 꿀맛 같은 회식을 했다.

### 8쌍의 부부 울릉도 관광산행 이철산우회, 후배 3명 함께

제27회 동기회 이철산우회는 지난 6월 22~23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북 울릉도에서 관광산행을 했다. 강봉호 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강 회장 부부를 비롯한 8쌍과 외로운 사나이 박찬석, 후배 3명 등 모두 20명이 참가해 섬을 한바퀴 돌며 관광을 하고 산행을 하는 묘미를 맛보았다.

## 밤엔 건배·노래 솜씨·취미 자랑 낮엔 등산·족구·배구 한마당

제21회 여름수련회  
제21회 동기회 올해 여름수련회가 지난 7월 16~17일 이틀간 부산 수영구 광안동급려산수련원(KBS 뒷산)에서 가족동반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거돈 회장(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수련회는 첫날인 16일 오후 7시 전

야제 막을 올려 축배 및 회식에 이어 노래와 장기자랑을 벌였고, 바둑 등 취미클럽별 기량 겨루기로 거의 밤을 지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아침에 40분쯤 걸리는 황령산 봉수대까지 등산을 했고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족구와 배구로 심신을 단련했다.

### 재경 이철산우회 11명 청계산 등정

제27회 재경동기회 이철산우회는 지난 5월 19일 청계산에서 동문·가족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행대회를 열었다. 청계산은 매봉 만경대 이수봉 국사봉 등 4개의 봉우리를 이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와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에 걸쳐있다. 일행은 이날 옛골~이수봉~청계사~인덕원 사거리 코스를 택했는데, 하산길에 청계골에서 동동주에 오리불고기로 허기를 달랬다.

## “반갑다” 신선한 첫 만남 제39회 경남 동문들 한자리에

초대회장 박경수 선임  
“정말 반갑다!”, “우리 경남 땅에 같이 살면서도 소식 모르고 살았재...”, “마누라 미인이라면서, 아이들은 멋이고...”, “아직도 혼자 사나?”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제39회 동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우정의 꽃을 활짝 피웠다. 지난 6월 5일 오후 6시30분 제39회 동기회 경남지역 동문 19명(이승기 원우광 천용준

박준곤 김형욱 김희영 신구범 박경수 최병구 이상훈 광기영 문기호 하성포 정성인 박 건 김영익 이남규 엄일규 이시재)은 경남 창원시청 후문 박규병 법률사무소 2층 초원갈비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회포를 풀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경수 동문(법무사 박규병사무소)을 초대회장에, 이상훈 동문(본초약국)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 우승 대비 선수들에 숙식 제공·특수훈련

허연욱 국군체육부대장(23회) 모교야구부 지원

국군체육부대장인 허연욱 동문(23회·육군준장)은 모교 야구부가 대통령배·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수들과 코치진을 부대로 초청,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운동장과

운동기구 등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했다. 특히 부대의 전문 야구코치진에게 선수들을 맡겨 기량을 향상시키도록 배려했다. 모교 선수들은 이 결과 청룡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 “모교 야구부 지원 감사합니다”

-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 △이상택(13회) 재경회장=200만원
  - △허연욱(23회) 국군체육부대장=선수 및 코치 숙식 제공·특수훈련 등 편의 제공
-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 △김경희(9회) 고문=금일봉
  - △신현호(12회) 동문=20만원
  - △김종익(13회) 재경동기회장=300만원
  - △이상택(13회) 재경회장=200만원

- △조동구(13회) 동문=저녁회식 지원
- △최동환(13회) 동문=200달러
- △신준호(14회) 동문=유유 1400개
- △윤승홍(14회) 재경수석부회장=100만원
- △김만홍(17회) 재경부회장=100만원
- △김귀언(18회) 재경부회장=100만원
- △김영해(23회) 재경부회장=10만원·회식제공
- △변용준(24회) 재경부회장=50만원.

### 경부골프 교류전도 열려

제24회, 부산팀 패권·개인우승 김경남

제24회동기회 경부골프교류전이 지난 5월 25일 오전 동부산CC(벨리코스)에서 열려 부산팀이 서울팀을 8타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또 개인전 우승은 김경남(-5), 메달리스트는 구본준(79타), 행운상은 김성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대회는 동기회(회장 김경남)가 주최

하고 골프회(부산회장 이철우·서울회장 변용준)가 주관한 가운데 20명(부산 14명·서울 6명)이 5개팀으로 나눠 기량을 과시했다. 이날 서울·부산 선수들은 라운딩 후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삼송초밥에서 열린 경부야구정기전 전야제에 참석, 후라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회포를 풀었다.

### 빛속 대운산에 올라 삼공산악회, 88차 산행

제30회동기회 삼공산악회 제88차 산행대회가 비가 쏟아지는 지난 6월 23일 경남 양산 근교 대운산(742m)에서 열렸다. 문장호 회장을 비롯, 동문·가족 13명과 제33회 후배·가족 3명 등 모두 16명은 천성일 산행대장의 리드로 정상에 오른 후 명곡쪽으로 하산하려다 길이 어긋나 장안사쪽으로 내려왔다. 일행은 문 회장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해물탕집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가을에 전국 동문·가족 참여 부산서 체육대회 열기로 제33회동기회 이사회 결의 제33회동기회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30분 부산 서면 엔젠히otel 2층 어부야에서 올해 2차 이사회를 열었다. 송종현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동기회 수첩 9월 배포를 위한 자료 수집, 오는 10월 본부 동창회 주최 기별야구대회에 즈음해 가족동반 체육대회 개최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추진하고 있는 가족동반 체육대회는 부산을 비롯, 재경 및 지역 동문과 가족들을 초청하고 활성화

### “천성일이 천성산서 헤메다”

삼공산악회 90차 산행기 신영주

살며 사랑하며

7월 7일 오전 10시30분, 미타암 들머리 주진마을에서 천성산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오늘은 미타암으로 올라가서 정상 을 거쳐 석계쪽으로 하산할 예정이다. 천성일 산행대장의 뒤를 따라 문장호(회장) 김병섭 박진수 서민석 왕순모 유창렬 장상현 신영주 등 9명이 1시간30분 동안 험허거리다가 미타암에 도착한다. 좁은 벼랑에서 있는 암자건만 대웅전은 웅장하며 고색창연하다. 정상 조금전 전망 좋은 곳 바위에 자리를 깔았다.

아.”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철저한 문구해석에 들어간 바. 등산하면서 화엄벌의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가 명확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지뢰지대(Mine Zone)가 붙어있는 철조망을 한 15분 끼고도니 순식간에 탁 트인 넓은 벌판이 나타난다. ‘화엄벌’이다. 갑자기 눈이 부시다. 햇볕때문인지 눈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경때문인지 분간이 안간다. “석계”쪽으로 하산방향을 잡



고 30분쯤 내려가다 보니 임도가 나온다. 임도를 따라 제법 걸었나 보다. 길이 끝나버리고 산이 나타났다. 산행 시작한 지 5시간이 다 되어가니 이제 제법 지쳐가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리니 힘이 빠진다. 유창열이와 서민석이 길을 찾으러 숲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수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수색대가 돌아왔지만 근처에는 등산로가 없는 것 같아 오던 길을 되돌아 가다보니 무심

결에 지나쳐버린 등산로가 나타난다. 큰 길이라고 안이하게 건다보니 놓쳐버린 모양이다. 한 30분쯤 내려가니 또 임도가 나온다. 길가 개울에서 발을 씻고 임도를 따라 한참을 건다 보니 또 길이 없어져버린다. 길 끝나는 지점에 작은 등산로가 있어 따라 내려갔지만 등산로가 없어져버리고 그냥 숲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행국이 되었다. 조그만 계곡을 따라 계속 내려갔다.

오늘은 거의 공수부대 산악훈련 수준이다. 한참을 내려가니 또 임도가 나온다. 이제 임도만 보면 겁부터 난다. 이번에는 긴장하여 찬찬히 살펴보니 방향이 확실히 잡히는 길이라 거침

없이 내려갔다. ‘용주사’가 나온다. 유여곡절 끝에 목적지로는 내려온 셈이다. 석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넘었다(거의 8시간 소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찜’파와 ‘탕’파가 용호상박이라 맥주와 소주에 ‘잉어찜’과 ‘메기탕’을 하나씩 시켜 입맛대로 먹고는 다들 집으로... 오늘 산행 제목은 이렇게 적고 싶다. ‘千聖-이千聖山에서 헤메다.’

되고 있는 삼솔회 산우회 테니스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성공적 개최가 되게끔 할 계획이다.

### 무학산 오르며 땀 빼고 마금산온천서 피로 씻어

삼삼산우회 28차 산행대회 제33회동기회 삼삼산우회 28차 산행대회가 지난 7월 14일 경남 마산 근교 무학산에서 열렸다. 강주태 산우회장이 주재하고 정

종훈 산행대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에는 28명의 동문·가족이 참석, 오전 10시 산행을 시작해 학봉~만날고개~석탑~정상~서마지기정자~철담~무학폭포~등나무산장(점심식사) 코스에서 땀을 흘렸다.

일행은 마금산온천에서 피로를 씻은 후 오후 5시 부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 부인·자녀 응원전 속 삼솔회, 천선야구대회

제33회동기회 삼솔회 주관 천선야구대회가 지난 6월 23일 부산 남구 용당동 부경대 용당캠퍼스에서 많은 동문·가족들이 나와 응원하는 가운데 열렸다.

백수현 회장이 주재하고 공진우 총무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부인들과 자녀들의 뜨거운 응원이 흥겨운 볼거리가 됐다.

###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제 8 회

林乙洙 = 중고자동차매매전문업
영업중(새연산매매단지) 017-552-7862
李相九 = 6월 21일 지병으로 별세
李熙玉 = (자택이사)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34-12 (1/1), 051-256-4542
安鍾烈 = 7월 6일 부산대학교 내상남국제회관에서 칠순 회식
金元鎬 = 단도염으로 연세대학교 신촌 부속병원에 입원 가료하다 퇴원, 자택에서 통원 치료중
李永熙 = (자택이사)경기 광주시 장지동 692-61 현대아파트 101동 1001호, 031-797-1874, 016-9335-1884

제 10 회

朴柱丸 = 경남 진해시 청안동 부영아파트 101동 603호, 055-551-2655
張炳泰 = 부산 해운대구 좌동 호성코오롱아파트 106동 803호, 051-731-1963
金星甲 = 부산 사하구 당리동 306-16 화천승학맨션 401호, 051-291-0954
孫永紹 = 경남 밀양시 교동 635 추하사승농장, 055-355-3933
方錫舜 = (자택이사)서울 강서구 화곡7동 367-26호, 02-698-0986
徐昌錫 = 7월 7일 서울 센츄럴웨딩 밀레니엄홀에서 딸 결혼
李啓昌 = 6월 9일 서울 규수당에 식당에서 장남 재범군 결혼
康泰漢 = 5월 19일 별세
李廷培 = (자택이사)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8-1 주공아파트 106동 1102호, 031-377-2515, 011-549-3799
金海龍 = (전화변경)0505-796-5656
金東洙 = David Dong Soo Kim, 10371 Garden Grove Blvd, #33 Garden Grove, CA92843 (R)714-636-2008 (B)714-854-5319, e-mail:dosoki37us@yahoo.co.kr
徐仁教 = Jim Suh, 28071 Calle Casal, Mission Viejo, CA92692 (R)949-951-9363
金萬郁 = Man Wook Kim, 1907 Mairmant DR Walnut CA91789 (R)909-598-5245
柳東雄 = Rhew, Dong W, 11440 Yolanda AV, Northridge, CA91326, (R)818-368-3647 (B)323-851-3974

제 24 회

權永達 =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396
盧相佑 = (주)문화통신공업 대표, 6월 2일 부친 별세, 051-528-0186
鄭永錫 =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관, 051-888-3300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건영1차아파트
曹永泰 = 북청물산 대표,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선경아파트

제 27 회

金泓昌 = CJ39쇼핑 부사장, 02-

e-mail:dongoongr@hanmail.net
dongoongr@aol.com
金鍾八 = Jong Pal Kim, 2839 Motellano AV Hacienda HTS, CA91745 (R)626-336-2747 (B)818-965-9808
e-mail:jgk@msn.com
李相華 = Sang H. Lee, 14100 San Antonio DR Apt.212 Norwalk, CA90650 (R)562-863-5995 (B)310-445-1155
方 顯 浩 = Bang Il Ho, 15850 Alicante RD #26 Lamirad CA (R)714-736-9079
e-mail:blh0450@lycos.co.kr
李利根 = Ea Gn Yi, 22 Las Cruces Rancho Santa Margarita (R)949-858-1490
e-mail:eagnwordsmith@cs.com

제 12 회

申東星 = 6월 13일 지병으로 별세
權 翼 = 6월 28일 부산시 북구 구청장 퇴임식 기념
金珉徽 = 6월 28일 서울 논현동 늘봄공원에서 3녀 결혼
金寅漢 = 6월 11일 부친 별세
南基鎔 = 6월 1일 롯데호텔에서 3남 결혼
柳博行 = 시흥, 시화공단 S.K.포리텔(주) 상무, 031-432-8061
李相吉 = 6월 7일 모친 별세, 부산 광해병원
鄭鎬仲 = 6월 15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장녀 결혼

제 14 회

林振馨 = 동주대학 교수, 6월 15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차녀 결혼, 051-200-3384
黃元奎 = 황원규소아과 원장, 6월 16일 국민일보사옥(서울)에서 차남 결혼, 051-852-9591

제 15 회

권승부 =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7동 2101호, 051-261-2997
任炳徽 = 5월 18일 전남 강진 궁전예식장에서 차남 규환군 결혼
金詳泰 =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단동 492-2 대우 에덴프라자 708호, 051-207-3871
李純求 = (자택이사)부산 북구 화명동 2290 코오롱하늘새1차아파트 103동 1601호, 051-364-5458

제 18 회

宋 實 = 4월 8일 모친 별세, 011-

2107-0030, 011-9524-9751

제 28 회

金成代 = (주)월드팜 이사, 051-518-7788, 0505-745-7001
崔台烈 = 제일노무법인 부산사무소 공인노무사, 051-818-5831~2, 016-9309-9688
白昌德 = 보험법인 (주)O.Kins 대표, 051-465-8288, 011-853-9995
梁鍾明 = 열린한의원 원장, 051-527-0988, 019-557-1561
鄭仁植 = 부산대파트 2층, 정인걸러리 대표, 부산화랑협회 감사로 선출, 017-565-8202
李萬洙 = PSB 정책편성기획실장
李元哲 = 28산우회 회장, 법무법인 국제 대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

회장으로 선출, 051-501-7703



834-4506
李相永 = 5월 18일 장녀 결혼, 051-531-4148
趙鎔泰 = 5월 26일 차녀 결혼, 051-291-9671
韓聖根 = 5월 26일 3녀 결혼, 051-647-5967
임영섭 = 6월 15일 호돌이 숯불집 개업, 051-263-7200
高萬淑 =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31동 105호, 051-758-3340
金敬傑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아파트 2동 1401호, 051-743-2457
金吉出 = 한국주철관(주) 대표이사, 051-291-5481
金用大 = 김용대정형외과 원장, 051-622-0024
金鍾喆 = 김종철 세무회계사무소 소장, 051-851-1601
金宗相 = 송호가스(주) 대표이사, 055-944-6840
朴榮復 = 신아토건(주) 대표이사, 051-867-5677
梁龍吉 = 부산광역시 청소과장, 051-888-3620
李永鎬 = 부산대 가정대학 교수, 051-510-2831
林道根 = 삼공사(주) 대표이사, 051-205-7101
洪宇在 = 학장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051-322-6543

제 20 회

金英豪 = 5월 4일 모친 별세(부산 남천병원)
車相坤 = 동양제강 전무, 5월 11일 대전 성당에서 딸 은아양 결혼, 051-263-5401
申鉉石 = 감리사, 5월 12일 대신동 구덕야영장에서 딸 유정양 결혼
姜鍾秀 = 삼동산업 회장, 5월 25일 해운대 중일교회에서 아들 태웅군 결혼
許圭判 = 6월 29일 대구 계산성당에서 아들 결혼
金大源 = 한도실업(주) 대표이사(사무실이전)부산시 동구 초량동 1197-8 한도빌딩 503호,

회장으로 선출, 051-501-7703

제 29 회

閔東植 = 대우조선해양(주) 055-680-2551, (자택)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강선마을 106동 2202호 031-921-2279, 016-9689-2551, e-mail:dsmin@dsme.co.kr
박병태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4

제 30 회

李相守 = 6월 17일 모친 별세
金虎範 = 6월 10일 모친 별세, 019-635-7702
金基洙 = 6월 10일 장인 별세, 011-9543-7422
吳秀童 = 웅진코웨이 부산사업처

지부장, (사무실개소)부산진구 범천 1동 862-1 제일빌딩 17층, 051-631-4664~5, 016-512-1266

051-462-0023 팩스 051-462-0035

제 21 회

陸和源 = (자택이사)경남 마산시 양덕2동 대림하이빌 105동 2201호, 055-292-2173
吳泰圭 = 6월 8일 모친 별세
閔丙允 = 6월 9일 모친 별세
崔龍七 = 6월 12일 모친 별세
成正根 = 7월 13일 홀리데이인 서울(마포)에서 장남 결혼
박상주 = 홈이벤트 개업, 011-873-2294
呂煥富 = 중앙토건(주) 대표, 055-243-3391, 011-865-6700
崔長錫 = 백병원(주) 정형외과, 011-851-4984

제 23 회

韓進洙 = 동아일보 영남본부장, 6월 6일 모친 별세
李炳賢 = 6월 15일 부인 별세
朴基旭 = 서면 삼오정 대표, 부산시의원 당선(한나라당), 051-819-7555
方哲寅 =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2동 1491-4 해진빌라 B동 402호, 051-744-0585
白昌英 = 협성해운(주) 상무이사, 051-463-1451
王致範 = 옥치과 원장, 국제신문사 옥 2층, 051-502-2580
元仁健 = 바른논안과 원장, 051-512-4148
盧永培 = 바른논안과 원장, 051-512-4148
李仁根 = 미라지오 대표(구 새부산예식장) 창선동, 051-245-1001
全容克 = 부영기공사 대표, 051-261-3688
趙顯彪 = 침례병원 응급실 실장, 051-580-1000
許 渡 = 영도구청 총무국장, 051-419-4091
高孝英 = K.Lee에이전트(처브페더럴보험 대리점) 대표, 02-722-5561
郭昌浩 = 인포로드 이사, 019-354-5727
金季浩 = 전무이사로 승진, 삼성물산 해외건설 영업본부장, 02-2145-5031
金文湘 = 원주에서 본사로 전보, 한전 해외사업처 사업개발팀장, 02-3456-5501
金成珠 = 제일투자증권 고문, 보라매지점, 02-848-0715
金永穆 = 중소기업은행 신구지점장으로 전보, 02-511-5806

5253, 018-303-7667
e-mail: mcpark@itcglobal.biz
제 33 회
李哲寬 = 7월 4일 부친 별세
제 36 회
許宗均 = 6월 23일 부친 별세
제 37 회
金泰希 = 6월 30일 부친 별세, 011-9136-1929
제 39 회
鄭鍾三 =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의 표창,

金在奉 = 신길동으로 자택 이사
金正漢 = 삼성전자 상무이사로 승진 (미국 현지 사장)
金鍾培 = 산업은행 인사부장으로 전보 02-787-6301
金鍾澤 = 범일엔지니어링 부산에서 근무, 051-469-9771
金鍾勳 = 대명물류 전무이사, 018-240-6924, 4월 24일 부인 별세
金址昌 = (재 일본)3월 6일 평택에서 부친 별세
金海錫 = 3월 29일 장인 별세
南基允 = 흥진상사 전무이사, 011-289-6780, 5월 24일 장모 별세, 6월 11일 장인 별세
陸大寬 = 5월 29일 부산에서 부친 별세
文榮信 = 5월 20일 아들 태웅군(15세), 보람도 없이 하늘나라로 떠남
朴成得 = 한겨레신문 기획실장, 02-710-0150
朴鍾萬 = 동양시멘트 해운담당 상무이사로 전보, 051-253-3200, 1월 31일 장모 별세
白仁昌 = (주)에스엔씨 대표이사, 02-3465-1923
徐相重 = 수지로 자택이사
辛源鍾 = 문래동으로 자택이사
安在星 = 6월 22일 장녀 결혼
安避鎭 = 3월 13일 장인 별세
吳光九 = 잠실로 자택 이사
尹炳祚 = 4월 28일 모래내 감리교회 담임목사 취임, 02-308-1961
李炳九 = 전무이사로 승진, 삼성카드 영업총괄 전무
李美載 = 대동복지 이사, 5월 1일 모친 별세
李永昌 = 실버관광호텔2층 오락실 개업, 051-758-9553
全瑛敦 = (주)윌비솔루션 회장, 02-2128-7575
全瑩才 = 4월말 해외 1년 파견
鄭仁根 = LG 니코동제련 상무이사, 02-3773-4204
趙先益 = 기코인터내셔널, 사무실 삼성동으로 이전, 02-516-4221
趙長來 = (주)효성 상무이사 울산 공장 총괄공장장, 052-278-7010
曹漢容 = LG화학 부사장으로 전보, 02-3773-7004, 문래동으로 자택이사
韓允吉 = 하나은행 포항지점장, 5월 6일 부산에서 장모 별세
許起雄 = (주)씨에이취 앤드 파트너스, 02-571-8737~9
許住憲 = 경성고등학교 연구부장, 02-3140-1212, 마포 태영아파트로 자택 이사
宋尙賢 = KOLON 인도네시아 현

018-303-7667
e-mail: mcpark@itcglobal.biz
제 33 회
李哲寬 = 7월 4일 부친 별세
제 36 회
許宗均 = 6월 23일 부친 별세
제 37 회
金泰希 = 6월 30일 부친 별세, 011-9136-1929
제 39 회
鄭鍾三 =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의 표창,

지법인장, 62-254-281234 (EXT 100), 팩스 : 62-254-281555 핸드폰 : 62-811-10-4567, E-MAIL : songsh@kolonina.com

제 24 회

權永達 =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396
盧相佑 = (주)문화통신공업 대표, 6월 2일 부친 별세, 051-528-0186
鄭永錫 =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관, 051-888-3300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건영1차아파트
曹永泰 = 북청물산 대표,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선경아파트

제 27 회

金泓昌 = CJ39쇼핑 부사장, 02-

2107-0030, 011-9524-9751

제 28 회

金成代 = (주)월드팜 이사, 051-518-7788, 0505-745-7001
崔台烈 = 제일노무법인 부산사무소 공인노무사, 051-818-5831~2, 016-9309-9688
白昌德 = 보험법인 (주)O.Kins 대표, 051-465-8288, 011-853-9995
梁鍾明 = 열린한의원 원장, 051-527-0988, 019-557-1561
鄭仁植 = 부산대파트 2층, 정인걸러리 대표, 부산화랑협회 감사로 선출, 017-565-8202
李萬洙 = PSB 정책편성기획실장
李元哲 = 28산우회 회장, 법무법인 국제 대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

회장으로 선출, 051-501-7703

회장으로 선출, 051-501-7703

제 29 회

閔東植 = 대우조선해양(주) 055-680-2551, (자택)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강선마을 106동 2202호 031-921-2279, 016-9689-2551, e-mail:dsmin@dsme.co.kr
박병태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4

제 30 회

李相守 = 6월 17일 모친 별세
金虎範 = 6월 10일 모친 별세, 019-635-7702
金基洙 = 6월 10일 장인 별세, 011-9543-7422
吳秀童 = 웅진코웨이 부산사업처

지부장, (사무실개소)부산진구 범천 1동 862-1 제일빌딩 17층, 051-631-4664~5, 016-512-1266

5253, 018-303-7667
e-mail: mcpark@itcglobal.biz
제 33 회
李哲寬 = 7월 4일 부친 별세
제 36 회
許宗均 = 6월 23일 부친 별세
제 37 회
金泰希 = 6월 30일 부친 별세, 011-9136-1929
제 39 회
鄭鍾三 =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의 표창,

018-303-7667
e-mail: mcpark@itcglobal.biz
제 33 회
李哲寬 = 7월 4일 부친 별세
제 36 회
許宗均 = 6월 23일 부친 별세
제 37 회
金泰希 = 6월 30일 부친 별세, 011-9136-1929
제 39 회
鄭鍾三 =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의 표창,



- 김성대(3) 심당의원장
- 전병기(3) 대한교구(주) 회장
- 이 경(3)
- 김용욱(4)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황갑생(4) (주)동신FRP 회장
- 이동주(4)
- 이문기(5) 형진공업(주) 대표이사
- 장인조(5) (주)합신 대표이사
- 장진우(5) 정진우회계사무소
- 김수현(5) 신동아화재보험
- 배문수(6) (주)동성산업 회장
- 임경택(6)
- 허광렬(6) 허광렬회계사무소
- 최병수(6)
- 김중경(7) 오경농장 대표
- 김진홍(7) 고려병원장
- 박두만(7) 생활체육탁구협회 전무이사
- 박일생(7) 태양실업(주) 대표이사
- 윤진현(7)
- 김광욱(7) 사회복지법인 한나모자원 이사장
- 김봉길(8)
- 문 국(8)
- 이운조(8) (주)유력공사 회장
- 장혁표(8) (사)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 도은영(8)
- 김중호(9)
- 배중태(9)
- 신도수(9)
- 이대규(9) 에너텍 회장
- 최성욱(9)
- 송남진(10) 부산의원장
- 이재순(10) 성림개발(주) 대표이사
- 전영대(10)
- 허영오(10) 신진물산(주) 대표이사
- 홍기석(10)
- 서정철(10)
- 김병기(11) (주)남아제관 회장
- 양응식(11) 부산대학병원장
- 엄한호(11)
- 이 명(11)
- 최형욱(11) 울산합동관세사무소
- 김동기(11)
- 권 익(12)
- 김준철(12) 협성검정(주) 대표이사
- 남기용(12) 문교산업(주) 대표이사
- 안영규(12) 마산 노인병원장
- 이창대(12)
- 구창덕(13)

- 김정재(13) (주)한일합섬 법정관리인
- 김중의(13) 백광산업(주) 대표이사
- 김환운(13) 경남고등학교장
- 신용웅(13) (주)원림 회장
- 문현길(13)
- 박정홍(14)
- 강무상(15) 강씨홍삼본가 대표
- 이재원(15) 부광약품공업(주) 대표이사
- 정창환(15) 정창환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정중(15) 삼정건설당 회장
- 조일량(15)
- 김정호(16) (주)경국 대표이사
- 옥윤석(16)
- 윤영식(16) (주)세동 대표이사
- 이재언(16) 인제대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 장상진(16) 동진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최정일(16)
- 강중국(16)
- 장정용(17) 우림통운(주)
- 정해진(17) 팬더상사 대표
- 신정아(17)
- 김종철(18) 김종철세무회계사무소
- 양응길(18) 부산시 청소과장
- 오명수(18)
- 신상건(19) (주)켄비텍 대표이사
- 이병호(19) (주)LEE HO 대표이사
- 이상달(19) (주)대성컨테이너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이준만(19) 고려상사 대표
- 황태원(19) (주)기명 대표이사
- 구영남(20) (주)세원 대표이사
- 박성규(19)
- 백승만(20)
- 최장하(20) 최요한성형외과의원장
- 표문배(20)
- 장춘식(20) 브림티엘엔 이사
- 강수경(21) 대동복지(주) 이사
- 송원경(21) 한성생명보험(주) 이사
- 오거돈(21) 부산시 행정부시장
- 전기환(21) 혜성병원장
- 정의주(21) (주)일산 부시장
- 조현영(21)
- 강성봉(22) 삼성여고교장
- 김도살(22) (주)대영 고문
- 김원주(22) 마산중앙극장 대표
- 김학균(22) 고려수산(주) 대표이사
- 이철용(22) 해동환경(주) 회장
- 김기형(22)
- 김동욱(23)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본부이사 명단

- 김성주(23) 제일투자신탁운용(주) 상무이사
- 박수갑(23) 부산노무사 소장
- 백창영(23) 협성해운(주) 상무이사
- 하영근(23) 하영근법률사무소 변호사
- 하길용(23)
- 김경남(24) 동아공업사 대표
- 문휘영(24) (주)평화기술감리단 대표이사
- 여철우(24) (주)인켈 대표이사
- 정영환(24) (주)고려교통 부사장
- 한승철(24) 한승철법무사 소장
- 박태진(24)
- 김중현(25) SKT상사 대표
- 김진우(25) 부산자모병원장
- 서보민(25) 삼우약국 대표
- 제영성(25) 제영성내과의원장
- 최동하(25) 진영금속(주) 대표이사
- 황호선(25)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 옥동훈(25) 모던개발 소장
- 김성환(26) 김성환소아과의원장
- 김태년(26) (주)태영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 박상호(26) 도원정형외과의원장
- 서경호(26) 대우전자 부산지사장
- 유봉식(26) 유니스산업 이사
- 최영해(26) 시엔지테크
- 김용태(27) 일월상공사 대표
- 문두찬(27) 문두찬피부과의원장
- 이판세(27) (주)PSG 대표이사
- 임기대(27) 고려실크 대표
- 김경진(27) 영진빌딩, 에덴볼링장 전무
- 김만중(28) 삼진공업(주) 대표이사
- 서영대(28) 한미음정신과의원 부원장
- 우근식(28)
- 이만수(28) PSB방송국 정책편성기획실장
- 조광재(28)
- 김치은(28) 화실화원 대표
- 김대욱(29) (주)태화마린 대표이사
- 박기찬(29) (주)전흥상사 상무이사
- 이석조(29) 웨스턴레스토랑 대표
- 정유성(29) (주)신진택시 대표이사
- 한휘철(29) 동래한빛치과의원장
- 권두진(29) 해천건설 대표이사
- 김병기(30) 한겨레치과의원장
- 서하수(30) 부일식유(주) 대표이사
- 송영환(30) 부경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
- 유영진(30) (주)유림어망공업 대표이사

- 유정동(30) 부산공익법센터 변호사
- 우홍제(30)
- 김민수(31) 김민수피부비뇨기과의원장
- 남철우(31) 남철우법무사사무소
- 박중호(31) 마택상사 대표
- 손영태(31) (주)한국카텔코 대표이사
- 최봉근(31) 부동산세브(주) 부산지점장
- 천장호(31)
- 김태홍(32) 한림학원 대표
- 신한국(32) 대우자동차 부산제일영업소 소장
- 안원철(32) 부산예술문화대학 부학장
- 이관우(32) (주)JR법인 대표이사
- 김형수(32) 동일종합유통 대표
- 권봉수(33) 벽산VDF 상무이사
- 송준현(33) 유원통상 대표
- 이호인(33) 클우동 대표
- 이 훈(33)
- 김용백(34) 밀양정형외과의원장
- 송환성(34) 고려항공여행사
- 정하태(34) (주)신한일가전 대표
- 황병주(34) 만제한의원장
- 옥재명(34)
- 김기철(35) 김기철치과의원장
- 김기수(35) 남성한의원장
- 정해준(35) 사민프라스틱공업사 대표
- 조홍섭(35) 대한건기 대표
- 손수범(35) 진로 석수사업소 대표
- 김병주(36) 부산치과의원장
- 백태민(36) 굿모닝성모안과의원장
- 이동현(36) (주)태성 관리이사
- 최성필(36) 동부산컨트리클럽 이사
- 최승호(36) 김막법률사무소 사무장
- 정일형(36) 굿모닝렌트카 대표
- 권기원(37) 한독치과의원
- 김지웅(37) 서인한의원장
- 박종민(37) Future kids
- 유호섭(37)
- 최기영(37) 카톨릭성형외과의원장
- 이춘우(37) ING생명보험
- 박정민(38) (주)오메가통상 부시장
- 우종완(38) 일흥섬유
- 김문철(38)
- 김성완(39) 하나병원
- 김형보(39) 동의대학교
- 문기호(39) 청아병원
- 이영준(39) 먼디파마코리아 부산지점장
- 장동수(39)
- 윤원욱(39) 근화제약

- 김용표(40) 나인스포츠 대표
- 심재혁(40) 동양화재 부산영업부
- 예진원(40) 갑진산업 대표
- 조상원(40) ING생명보험
- 한수열(40) 범한여행사
- 류지섭(41) (주)아이즈비전 경영지원팀
- 김병철(41) AIG생명보험
- 박상욱(42) (주)이즈컴 대표
- 송정렬(42)
- 이학로(43)
- 정재욱(43)
- 임정훈(44) 새마당에식장 관리부 과장
- 김영주(44) 후곤인터넷월드 대표
- 김동완(45)
- 박진수(45) 후곤인터넷월드
- 김봉수(46)
- 송영주(46)

### 지역이사

- 김중경(7) 양산회장
- 손영수(10) 밀양회장
- 최재용(11) 인천회장
- 김두수(12) 제주회장
- 이상택(13) 계곡회장
- 최문락(13) 수원회장
- 김형수(14) 울산회장
- 윤용남(14) 거제회장
- 임성철(14) 통영회장
- 박세갑(15) 김해회장
- 윤희정(15) 원주회장
- 조규중(15) 대구회장
- 최수용(15) 충북회장
- 김덕수(19) 대전회장
- 김환식(19) 진주회장
- 김재근(19) 마·장회장
- 박시영(20) 구미회장
- 김철현(22) 포항회장

### 직능이사

- 박한복(9) 골프회장
- 이창대(12) 경총회장
- 제병민(13) 용마산악회장
- 한병조(13) 용마바둑회장
- 김 조(16) 등대회장
- 장상진(16) 용건회장
- 주기민(16) 정문회장
- 정형근(19) 테니스회장
- 진경일(20) 경수회장
- 박광웅(25) 경야회장

## 제36회 홈커밍데이축제 “앞으로 10년 ‘성공시대’ 열자”

### 김성현 등 2명 본부회장 공로패 받아

제36회동기회는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 경남고 체육관에서 졸업 2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를 열고 300여 용마가족들이 벅찬 반가움을 나누며 한데 어울렸다. 최승호 김재일 부산·서울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축제 1부 기념식은 주상우 당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20여 은사님들과 박동열 본부동창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한병조 사무국장(13회)·김병수 총무부장(22회) 등 본부 임원 및 사무국 관계자 등이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최승호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은

사들에게 사은품을 일일이 전달했고 박동열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김성현 백태민 등 2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상민 홍의창 동문에게 순금배지를 전달했다. 또 김향은 경남고 교장(13회)은 박철중 김영훈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최 회장은 본부에 장학금 400만 원을, 모교에 기념사업비·교사연구비·재학생 기념품 등 800만 원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만의 모교 방문은 우리 36회 동문·가족을 감동시키고, 모교와



은사 모신 20년 만의 재회. 제36회 동문들이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 기념식 후 원형교사 앞에서 은사들을 모신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창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은사님들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각계각층에서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모두 ‘성공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1부 기념식을 마감한 일행은 잠시 휴식에

들어가 교정과 학업을 닦았던 정든 원형교사 등을 둘러보고 감회에 젖었다. 이들은 모교 체육관에서 정윤희 동문 사회로 열린 버라이어티쇼에 참석했다. 추억과 낭만, 꿈과 사랑이 넘친 한마당은 젊음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다.

## 내년 홈커밍축제 준비 늘우동무시기 성금 조성 제37회동기회 정례회

제37회동기회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사학연금관리공단 18층 크리스탈 뷔페에서 7차 정례회를 열었다. 최기영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 내년 홈커밍데이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유호섭·감사 조성각) 본격 운영·어려운 동문 돕기 성금 조성 현황 보고·정례회 3개월마다 개최(현행 2개월마다)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다(사회 이춘우 총무). 이날 참석자 중 9반이 박종민 동문 등 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반이 김경수 동문 1명으로 가장 적었다.

## 제27회동기회 임원 명단

- 고문**  
공민배
- 김용태 일월상공사 대표
- 문규상 부산지점 특수부 부장검사
- 문두찬 서면메디칼센터 문두찬성형·피부과 원장
- 박명준 KTF센터장. 세라골프 대표
- 옥명훈 국부사 대표
- 임기대 고려실크 대표
- 장창조 부산광역시 시의원
- 장기남 한미교역 대표
- 하영제 남해군수
- 한명철 한명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 직전회장**  
이판세 PSG 대표이사
- 회장**  
김태우 국제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수석부회장**  
조용수 동아대학교 공대 건축학과 교수

- 부회장**  
권명보 국제신문 광고국 국장
- 김병호 구포성심병원 정형외과 과장
- 김석운 예진 F&G(주) 전무
- 김원대 해창한의원 원장
- 김지원 (주)창연대표
- 김정희 범내골 로타리약국 대표
- 김형일 부산지방법원 사무관
- 박규욱 박규욱피부비뇨기과원장
- 백승엽 (주)영진레이저 전무
- 신범윤 현대정유 차장
- 이봉춘 남산동 남산내과 원장
- 이승훈 부산유조선 전무
- 이중찬 외환은행 정관지점장
- 장인철 장치과원장
- 정민화 정내과원장
- 정광모 명성빌딩 대표
- 정현찬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감사**  
박현호 부산은행 본점 전략기획팀장
- 허 한 동방박사 광고기획 대표
- 수석총무**  
김경진 영진빌딩·에덴볼링장 전무
- 총무**  
강봉호 삼성화보대리점·기아자동차판매점
- 이사**  
강영건 강승호 강주훈 강태영 공기열
- 권순홍 김근우 김광익 김대룡 김덕원
- 김병열 김병룡 김상문 김안석 김용섭
- 김진명 남경진 박상훈 박진우 박찬용
- 박창곤 박치호 방명수 배병호 배재홍
- 백성운 변재국 신현원 신해진 윤종락
- 류성모 이상열 이인규 이태주 이 현
- 임용한 전창민 조봉관 조영일 최경룡

- 최기석 천우태 최후진 최명권 태기섭
- 한수길 한장원 한용철 황호경
- 본부동창회 부회장**  
윤정환 문화관광호텔 회장
- 본부동창회 감사**  
김태우
- 본부동창회 이사**  
김용태 문두찬 이판세 임기대
- 서·사하구지회장 양태종 총무 윤지한**
- 남·수·기·해운대지회장 강봉호 총무 허 한**
- 연제·동래·금정구지회장 이봉춘 총무 정광모**
- 등산회 회장 강봉호 총무 이종찬**
- 기우회 회장 정민화 총무 윤지한**
- 골프회 회장 윤정환 총무 방명수**
- 기별야구 단장 박천석 감독 배기용**
- 재경동기회 회장 김동조 총무 이승준**
- 마창동기회 회장 김경수 총무 허 중**
- 울산동기회 회장 윤종철 총무 박정민**